

전국 폐기물업체 10곳중 6곳 '방치'

전국 사업장에 73만이 넘는 폐기물이 방치된 가운데 불법으로 관리해온 처리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에 대해선 현지 항구에 보관 중인 1200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수도권 일대 폐기물처리업체 76곳을 지난해 11월 집중단속한 결과 61.8%인 47곳에서 법 위반 58건을 적발, 다음달 중으로 수사의뢰·고발 조치 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에 방치된 방치폐기물과 입아·입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할 불법투기 폐기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방치폐기물은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34개 업체에 약 73만2000t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반사항 적발 업체 2월중 수사의뢰·고발

필리핀 불법폐기물 반입...비용 등 협의 중

불법폐기물 예방·감시 및 사후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려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부와 지자체가 이달까지 4700여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폐기물 보관장소 이외 보관 24건, 허용보관량 초과 3건, 무허가(변경) 3건, 폐기물 불법소각·처리 4건, 부정적 보관·처리 9건, 수집 운반중 미부착 등 기타 15건 등이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부정적 보관, 허용보관량 초과 및 무허가 등 적발된 위반 행위가 대부분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된 사항으로 발생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지자체별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전국 불법 투기현장을 전수조사해 조사 결과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선 2월 중 수사의뢰·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필리핀에 불법 수출한 폐기물에 대해선 필리핀 정부에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 국내 반입 입장을 전달했다. 우선 지난달 28일 필리핀 현지 항구에 보관 중인 약 1200 국내 반입을 위한 대집행 위탁계약을 완료했으며 반입 비용 등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국내 반입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현재 페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출은 환경부에 수출신고를 하고 관세청을 통해 수출하도록 돼 있다. 그

러나 필리핀에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는 서류상으로는 깨끗한 페플라스틱만 수출하기로 하고 실제론 이물질 등이 포함된 페플라스틱을 불법으로 수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페플라스틱 수출신고를 한 전국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까지 해당 사업장과 항구 내 보관 중인 컨테이너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나아가 방치폐기물 특별점검과 불법투기 전수조사, 폐기물 수출 현장 실태조사를 이달 마무리하고 결과를 분석해 위반사항에 대한 적법 조치 등 후속 조치계획은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치·적체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행정대집행 예산 58억원 집행 계획을 확정해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뉴스스

가봉, 쿠데타 시도 육군 장교들 사살·체포

가봉 정부는 7일(현지시간) 육군의 쿠데타 시도를 저지했다고 밝혔다고 미 ABC 방송이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육군 장교 2명이 사살되고 여러 명이 체포됐다.

정부가 쿠데타 기도 장교들이 장악했던 방송국과 수도 리브르빌의 주요 도로를 장악했으며 정국은 안정됐다고 기베트랑 마광구 정부 대변인이 프랑스국제라디오방송(RFI)에 밝혔다.

대변인은 국영 라디오 방송국을 점거한 육군 장교 5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잡고 있던 인질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2명이 보안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대통령 성명이 밝힌 것으로 RFI가 보도했다.

수도 리브르빌에는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있으며 인터넷 접속도 차단됐다. 탱크 등 무장 차량이 도로를 순찰하고 있다. 앞서 7일 오전 오후 10시 켈리 공화국 영내 중대장이라고 밝힌 장교가 군부가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가봉 정부를 장악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리 봉고 가봉 대통령은 2009년 이래 집권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뇌졸중에 걸렸다는 보도와 함께 가봉을 떠난 상태다. 그는 최근 치료를 받고 있는 모로코에서 촬영한 신년 메시지 연설을 했다.

봉고 대통령 반대세력은 그의 일가가 국가의 자연자원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20만 국민을 위한 기초 시설에는 충분히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세계은행은 가봉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층이라고 밝히고 있다.

쿠데타 발생 소식이 전해지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쿠데타 기도를 비난하고 헌법 준수를 요구했다고 스테판 뒤자릭 대변인이 밝혔다. 아프리카연합(AU) 역시 봉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멕시코 카리브해안가 술집서 총격 7명 사망

멕시코 카리브해안가에 있는 한 술집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총 7명이 사망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주·지방 경찰은 멕시코 동부 카리브해안가에 있는 관광도시 플라야 델 카르멘의 한 술집에서 전날 밤 총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술집은 관광객들이 많은 곳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전해졌다.

6명은 술집에서 총을 맞고 바로 숨졌으며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사망했다.

부상을 당한 한 남성은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고 있을 때 총성이 울렸다고 전했다. 용의자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플라야 델 카르멘은 한때 조용한 어업 도시였지만 최근 20년 동안 급성장했으며, 해안 고속도로 내륙 쪽으로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 생겼다.

캘리포니아 겨울폭풍에 정전·고속도로 폐쇄

강력한 겨울 폭풍이 휩쓸고 간 북부 캘리포니아지역에서 쓰러진 전주들과 나무를 치우기 위해 7일(현지시간) 설비회사 용역들이 투입되어 작업을 계속했으며 이로 인해 주 고속도로가 임시 폐쇄되었다.

강풍으로 큰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전신주들을 쓰러뜨려 일요일인 8일 밤 새크리멘토 지역 전체에서 거의 9만명의 주민들이 정전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7일 아침까지도 1만3000여명의 고객들이 아직 전기를 쓰지 못하고 있다.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도 주말 북서부를 강타한 폭풍우로 정전이 계속되면서 아직 수 십만 명이 불편을 겪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플레이서 카운티에서 네바다주 경계선까지 이르는 80번 고속도로는 7일 통행이 재개되었지만 네바다주 와슈 카운티 일대는 아직도 폐쇄되어 있다고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이 밝혔다.

타호 호수 주변은 6일 밤 내린 폭풍설로 눈이 쌓여 이 일대 고속도로 역시 폐쇄되었고, 주말 관광객들은 서둘러 이 곳을 떠났다.

미 국립기상청은 7일 시에라 네바다 산의 1200m 이상 고지대에 폭설과 강풍을 예보하고 시계가 매우 나쁨을 경고했다.

이 일대의 산악지대에는 사흘 동안 30cm에서 최고 137cm(메머스 산)의 눈이 내려 쌓였으며, 곳에 따라 눈사태도 발생했다고 이 곳 리조트에서 발표했다.

북부 캘리포니아의 저지대와 해안지대에는 눈 대신 비가 내려 13cm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습한 날씨는 8일까지도 계속되었지만 비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보되었다.

대학 240곳에 8500억원 지원...기본역량진단 연계

정부가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된 일반대 131곳과 전문대 87곳,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일반대 12곳과 전문대 10곳 등 240곳에 85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약 16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8일 발표했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해 전국 143개 대학에는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한 5688억원이, 전문대학 97곳에는 약 16% 늘어난 2908억원이 지원된다.

앞서 지난해 3월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통해 ACE+(자율역량)·CK(특성화)·PRIME(산업연계)·CORE(인문역량)·WE-UP(여성공학) 등 5개의 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사업'으로 통합했다.

우선 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된 I유형(자율협약형) 대학 131곳에 5350억원이 투입된다. 이들 대학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 등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II유형(역량강화형)은 구조조정 촉진·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역량강화대학 30곳 가운데 12곳을 선정해 올해 296억원이 지원된다.

III유형(후진화 선도형)은 자율개선대학 가운데 평가를 통해 권역별 3곳씩 15곳을 선정하고 올해 150억원(학교당 10억원)이 지원된다.



산천어를 낚아보자 강원 화천산천어축제 개막 넷째 날인 8일 오후 화천군 화천천 얼음벌판에서 관광객들이 얼음낚시를 즐기고 있다.

광주 중·고교 배정 31일 발표...'광산 정원초과' 예상

2019학년도 광주지역 중·고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오는 31일 발표한다.

8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31일 중학교와 후기전형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중학교 신입생 1만4529명은 출신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나이스 기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학군별로 무작위 컴퓨터 추첨방식으로 배정한다.

고등학교 신입생 1만6422명은 선지원에서 정원의 20% 후지원에서 80%를 성적등급(3등급)을 고려해 무순위로 추첨한다.

선지원은 전체 평준화 일반고 중 2개교를, 후지원은 중학교별 배정 가능 고교에서 학생이 희망한 학교를 추첨해 배정한다.

자율협동립과 과학중점학교는 선지원에서 100% 선발한다.

학생 수보다 고등학교 수가 적은 광산구는 올해도 정원이 초과돼 타 자치구에 원거리 배정될 전망이다.

올해 광산지역 고교 진학 학생 수는 5456명으로 전기전형에 합격해 타 시·도 고교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제외하더라도 정원 초과가 불가피하다.

지난해에는 광산구 고교 신입생 3922명(남자 1898명, 여자 2034명)

중 798명이 타 자치구에 배정됐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산구에 위치한 비아중학교를 2023년에 가정 비아고등학교로 개편해 광산지역 고교 배정에 슬롯이 트이게 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중학교 졸업생 수가 지난해보다 239명 가량 증가했다"며 "비아고등학교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광산지역 정원 초과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평준화고교 신입생 배정 결과는 오는 18일 발표한다.

조인호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기 건강진단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